



**속회에배 순서지**  
성령강림 후 5주 7월 5일

## 감사를 현재화 하라

출애굽기 23:14-17

찬송가 304장

기도 받은 이



이스라엘 백성들은 일 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.

이 히브리인들의 3가지 절기는 유예상황이 전혀 없는,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처럼 여겨지는 절기에배입니다. 우리 또한 한해의 절반을 살면서, 또 앞으로 주어질 한해의 절반을 살아내면서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신앙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.

구약 성경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데스바네아 이후의 세대들인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의 말씀을 하십니다.

1. 그 절기의 바탕이 **[애굽생활]**입니다.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혹독한 여정을 말합니다. 애굽에서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출애굽기 2: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에 모양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‘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’고 하였습니다.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곳은 **애굽**이라고 말씀 하십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애굽은 어디입니까? 그 고난의 때를 지금 우리가 기억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? 그것을 안다면 우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. 지난날에 힘들고,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감사의 자리로 인도 할 것입니다.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.

2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**[감사를 현재화 하라]**고 하십니다. 감사는 철저히 오늘이라는 이 자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. 감사를 **[지금하라]**는 뜻입니다. 물론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감사는 철저히 현재형이자 진행형입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5:17절에 ‘범사에 감사하라’ 모든 일에,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. 환경이 되었기에 감사하고, 환경이 안 되어서 오늘의 감사를 미룬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감사가 아니고 식어진 의미 없는 감사의 표현입니다.

지금 우리의 감사는 현재화를 이루고 있습니까? 감사가 빠진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빈손이 아닌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속도원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.

**3. 출애굽기 23:17절 ‘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’**  
감사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당시에 남자는 가족을 대표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하나님은 매년 세 번씩 절기에 모든 남자는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. 이 세 번의 시간이 지나면 거의 일 년의 시간을 지내는 폭입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의도이겠습니까? 끊임없는 감사로 지내되 혼자가 아니라 **가족 전체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.**

혹시 우리 속회 가운데 감사를 잊은 분들이 있으십니까? 속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, 개개인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 속회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운명공동체 임에도 개개인으로 살아가는 울타리라고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. 이제는 속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저절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주변에 감사가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감사가 매말랐습니다. 이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

□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?

1.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.
2.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눠 봅시다.



- 특별히 속회 안에 돌봄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 다함께 중보기도 합니다.
- 담임목사님 목회위에 성령충만 능력충만 말씀충만을 위해 중보 합니다.



- 헌금찬송 :301장
- 마침기도 : 속장 혹은 말은 이



- 금주 속회 실천사항 나누기  
- 속회예배 드리기(가정 / 주중 교회 속회방 / 킥톡 그룹톡 / 줌 영상통화)  
- “생기로 살아나라” 예배 안내서와 함께 영성생활 이어가길 바랍니다.